



전남 교육 명예대사인 연예인 최수종씨가 전라남도교육청에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강사로 나서 강의로 전액을 기부했다.

최수종, 전남 학생들에 재능 기부

‘엄마·아빠는 하나뿐인 내편’ 강의

2016년부터 ‘희망 전남 교육 명예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씨는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2019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 교육’에 출강해 ‘엄마 아빠는 하나뿐인 내편’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2011년부터 (사)전남영상위원회 위

원장을 맡고 있는 최씨는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 캠프’를 통해 전남 학생들의 연기와 영상 제작 지도 등에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내년에는 졸업생들과 함께 10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최씨는 “앞으로도 자녀 인성 교육과 부부힐링 등에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인천 시내버스노선 ‘지선’ 위주로 바꾼다

한정면허 17개 노선 폐지

인천시가 20일 인천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및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노선개편 용역은 인천시가 지난 7월에 발주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외 3개사가 내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빅데이터에 근거한 노선개편안 마련 등 주요 과업을 수행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굴곡노선과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현재 ‘간선’ 위주의 노선운영에서 철도, 병원, 상권, 학교 등 시민들의 동선과 가까운 ‘지선’ 위주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 시내버스 노선운영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있다. /인천시

노선체계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또한, 버스노선 효율화 정책 수립에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던 한정면허 17개 노선을 폐지해 재정부담도 줄이고, 효율적인 버스행정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에 치과비 지원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10만원

전남 무안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아동들의 의료비지원 사업을 위해 18곳의 치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치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치아 흡메우기, 불소도포의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발치, 신경

치료, 레진치료, 보철의 치료진료 등으로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등학교 졸업까지 매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방식은 저소득층 아동이 원하는 치과 병·의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무안군 보건소에서 치과 병·의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광주형 일자리’ 막 올랐다 年 10만대 경형 SUV 생산

경형 SUV 생산 새로운 실험
현대자동차로서 위탁 생산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중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생산하는 경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어떤 차량이고, 향후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은 2021년부터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SUV를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세단과 SUV 모두 승용차로 구분된다. 승용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다. 경형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다.

소형은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다. 현재 국내 경차 시장은 기아자동차와 한국GM이 양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형 SUV는 생산되지 않고 세단(모닝, 레이 등)만 생산된다. 그런 만큼 경형 SUV를 생산한다는 광



광주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발기인 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은 새로운 실험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20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경형 SUV 생산체제는 자동차 업계에서 새로운 실험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국내 수요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자동차 생산체제를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SUV 판매량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SUV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

국내 완성차 5개사의 SUV 판매량은 2012년 25만6923대에서 2018년 51만 9886대로 2배 이상 성장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소형 SUV인 스포티지, 쏘울, 셀토스(올해 7월 출시)를 생산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스포티지 연간 생산량은 2016년 20만5363대, 2017년 20만1100대, 2018년 18만3908대로 줄어드는 추세다.

쏘울 연간 생산량은 2016년 17만 2184대, 2017년 16만5508대, 2018년 15만6716대로 감소 추세다.

현대자동차 측은 SUV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경형 SUV를 개발해 세단 중심의 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담양 명옥헌 원림 ‘백일홍 만개’

폭염이 한풀 꺾인 20일 담양 고서면에 위치한 명승 제58호 명옥헌 원림에 백일홍이 활짝 피어있다.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지역 지정

용도변경 따른 소요기간 4개월 단축
부지 매입비 31억 고흥군 예산 반영

전남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가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부지에 데이터센터, 지역 농업인 음식점, 농수산물 가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청년보육센터, 실증단지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매입을 위한

소유권 이전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부지 매입비 31억 원을 2019년 고흥군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임대법인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7월 중 농식품부에 부지매각 처분 승인을 요청한 후 8월 7일 농식품부로부터 매각 처분계획 승인을 받았다.

/전남=양수영 기자

인천공항공사, 노인복지 향상 아이디어 공모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고령화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노인 복지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9월 9일 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

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 “인천공항과 사랑을 잇다. 노인복지를 찾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후원하고 한국노

인복지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의 공모분야는 치매 증상별 대분류에 따른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으로서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오늘의 날씨

8월 21일 (수)
음력: 7월 21일

수도권 날씨
31 ~ 2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52 | 해질 / 19:18

연천 21/30
동두천 21/29
가평 20/30
파주 24/33
서울 24/31
인천 25/29
수원 24/30
양평 22/30
용인 24/30
평택 23/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